

문화도시 순천은 지금 '시민이야기꾼' 열풍

남문터광장 문화놀이터서 매월 이색적 주제 토크쇼

순천 원도심의 밤을 수놓는 시민의 진솔한 이야기

순천시와 순천문화도시센터가 원도심 일대의 야간문화와 시민주도 문화공간 '문화놀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시민이야기꾼> 사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이어지고 있다.

'토크콘서트는 유명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라는 고민에서 시작된 <시민이야기꾼>은 순천부 읍성 남문터 광장 문화놀이터에서 매월 이색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신청자가 직접 토크쇼의 내용, 날짜, 진행 시간, 이야기 샷 등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파격적인 공모사업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5월에는 '나의 문화예술 이야기'라는 주제로 ▲기준미술관의 문제점, 그리고 컨테이너 미술관 ▲

나의 꿈, 나의 가치 ▲대학생 동아리 문화 ▲문화예술에 다가서는 용기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 ▲장애인 예술가의 삶 ▲인생이모작, 나의 그림 이야기 ▲당신의 애매함에 박수를 쳐라 등 7명의 시민이야기가 펼쳐졌다.

6월에는 '나만의 노하우'라는 주제로 지난 7일 세상을 보는 눈, 9일 행복을 찾는 법, 문화예술에 막고 살기, 11일 내 청춘의 위로였던 브로콜리너마저가 진행되었고 오는 ▲ 13일 대외경험 쌓는 노하우 ▲ 15일 음악으로 나누는 김광석 이야기 ▲ 21일 브레인 트레이너 ▲ 24일 발달장애 아동들과 함께, 소통의 방식 ▲ 30일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춤 브리댄스, 사진으로 떠나는 동유럽 배낭여행 등 총 8일 간 11개의 이야기가



문화놀이터 야경

강연, 공연, 토크콘서트, 토론 등 다양한 형태로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가 진행된다.

순천문화도시센터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이야기꾼과 방청객 모집을 상시로 할 계획이다. 모집 단계에서 시민분들께서 이야기 삽을 최고 금액으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스스로 적정금액을 매기는 모습에 시민의식이 높다는 것

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며, "현 상황이 이어지면 오는 11월까지 사업이 속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 시민이야기꾼의 지난 이야기들은 순천문화도시센터 유튜브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이야기 주제 및 참여 신청 관련 정보는 순천문화도시 홈페이지를 비롯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순천=조준기 기자

보성군 한국차박물관 전시공간 공유 프로젝트 참여 작가 모집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은 오는 17일 까지 '한국차박물관 전시공간 공유 프로젝트'에 참여할 지역작가, 차인 및 다원을 모집한다.

참여작가로 선정되면 19일간 박물관 기획전시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작품 설치비 등 100만 원 이내에서 전시 비용을 지원한다.

모집대상은 지역 예술작가와 단체를 비롯하여 차(茶)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차인 단체와 다원이다. 전시 장르는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문학, 비디오아트, 소장유물 등이며 전시의 30% 이상은 차(茶와) 관련된 작품이어야 한다.

특히, 보성군은 이번 전시를 통해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보성 차문화와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 관계자는 "차 문화를 향유하는 각종 도구부터 차를 생산하는 농기구, 포장지 등 다양한 유물 전시로 준비로 지역의 정체성을 돌아보고, 지역 문화예술 전반에도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 한국차박물관은 다례 교육 및 차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성=장국도 기자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 증원 따른 위원회 구성 조례 개정

제8대 마지막 임시회 하루 일정으로 열려

광양시의회는 지난 10일, 하루 일정으로 8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가 될 제30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는 광양시의회 임시회는 당초 7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5월 27일 광양시장의 임시회 소집 요구에 의해 열렸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선거구 조정으로 광양시의회 의원 정수가 1명 증원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광양시 행정기구

구 설치와 정원 조정에 관한 건은 지난 제308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고, 어린이보육재단 출연 등의 건은 그동안 회기에서 세 차례에 걸쳐 부결된 바 있다.

진수화 의장은 "이번 광양시장이 제출한 안건들은 민선 8기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향후 신임 시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의회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열고 새롭게 출범하는 제9대 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데 이어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등을 선출할 예정이다.

/광양=조준기 기자

구례 정원관리사 양성교육 열기 가득

정원문화 확산 '생태도시 이미지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구례군은 꽃과 나무, 정원 가꾸기 '가드닝(Gardening)'에 관심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3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 매주 4시간씩 실시 중인 정원관리사 양성 교육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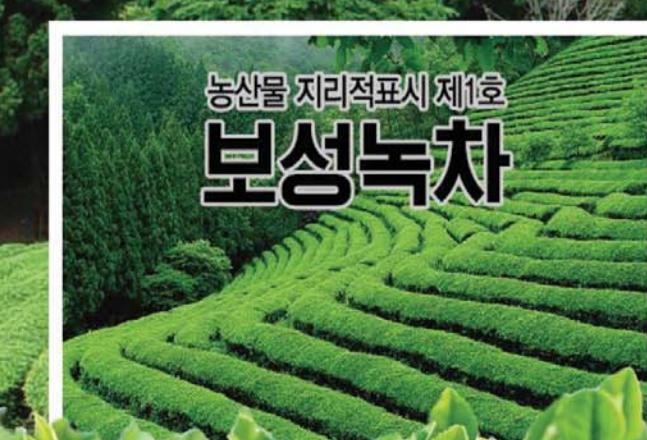
교육생들은 그동안 이론수업을 통해 정원에 대한 기초지식을 차근차근 쌓아왔으며, 남해군 섬이정원을 현장학습 방문하여 이론을 실제에 접목해 보는 등 실무능력 향상에도 힘 쏟아 왔다.

현재는 상상하며 머릿 속에 담아두었던 나만의 정원을 도면 작업 중이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 실제 호스터 식물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4개월간의 상반기 교육은 마무리 된다.

군 관계자는 "정원관리사 양성교육을 통한 나만의 한 평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유의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오광범 기자

소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몰 ▾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

여수시,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 '최우수상'

TF팀 '주차장 세외수입 증대방안' 과제 발표

여수시는 최근 '2022년 전남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찬회는 지난 9일과 10일 고흥군 씬밸리리조트에서 전남도 22개 시군의 세무담당 공무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연찬회에서 여수시 징수과 박지혜 주무관은 '주차장, 너의 또 다른 의미, 공영주차장! 그 안에 세수(稅收)가 있다'라는 주제로 연구 과제를 발표했다.

14개 시군이 열띤 경연을 벌인 결과 여수시가 세외수입 분야 최우수 도지사 표창과 함께 시상금 200

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연구 과제는 여수시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주차타워 건립, 바다제어 무인정산시스템 등 공영주차장 확충 노력이 주차장 수입으로 인한 세수 증대까지 이어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징수과 직원들이 TF팀을 구성해 바쁜 업무 중에도 연구를 이어간 끝에 일은 값진 성과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정 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조일상 기자

곡성 유기농 생태 마을 2개소 신규 지정

삼기면 근촌마을·연봉마을

곡성군은 삼기면 근촌마을과 연봉마을이 전라남도 유기농 생태마을로 신규 지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 실천에 적합한 지역을 유기농 생태 마을로 지정해 육성해 오고 있다. 유기농업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마을 전체를 유기농업 체험장으로 활용해 농촌관광의 명소로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이번 유기농 생태 마을 지정으로 삼기면 근촌마을과 연봉마을은 지정서 교부를 비롯해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됐다. 먼저 유기농업 확대에 필요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신청할 경우 우선권이 있다.

또한 개소당 5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 사업과 2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유기농 생태마을 활성화 사업의 신청 자격도 얻게 됐다.

유기농 생태 마을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 10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을 말한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이 10㏊(유기농 비율 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마을 구성원의 친환경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곡성군은 삼기면 근촌마을과 연봉마을을 유기농 생태 마을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4월에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지정이 최종 확정됐다.

/곡성=이상석 기자

고흥 '착한가격, 건전한소비' 캠페인 진행



고흥군은 지난 10일 고흥전통시장에서 공무원, 시장상인회원과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민관합동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캠페인 참여자는 전통시장 내 상인과 군민을 대상으로 △상품가격의 과도한 인상 자체 △가격, 원산지 표시 이행 △전통시장 이용하기 및 소비자의 건전한 소비활동 등을 독려했다.

/고흥=최혁민 기자